

투데이 칼럼

공공기관 예식장 활성화로 결혼문화 변화 꿈꾸며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결혼식은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부모와 결혼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되어버렸다.

최근 전주시가 시청 앞 잔디광장을 시민들의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했지만 아직 단 한 건의 이용 신청도 없었다는 소식을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도시 한복판의 시청 앞 잔디광장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음에도 전주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용률 문제를 넘어, 오늘날 우리 결혼문화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주시내 고급 예식장은 연중 예약이 가득하고, 식사비는 1인당 5만 원을 넘은 지 오래다. 고급 호텔 예식장은 7만 원대를 훌쩍 넘긴다. 하객들조차 "부조금 5만 원으로는 밥값도 안 된다고 말하며 최소한 10만 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하며,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참석하기에 부담스러운 지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에겐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주거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버겁다. 임금 상승은 더디고 미래 불안은 커져만 간다.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넘기 어려운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경제적 관문이 되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3포 세대, 5포 세대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단지 가치관 변화로만 치부할 수 없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비용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결혼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문제로 인식해 왔다.

공공기관 청사와 시청 강당을 결혼식 장소로 제공하고, 간소하지만 품격 있는 예식을 장려한다. 화려함 대신 의미를, 과시 대신 공동체적 축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전주시의 잔디광장 개방은 결혼을 사회가 함께 축복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선택지를 외

면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결혼식을 '남에게 보여주는 행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객 수, 예식장 규모, 식사 수준, 장식의 화려함이 결혼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83년 필자의 결혼식을 떠올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떠오른다. 정부에서 가정의예준칙을 제정하여 청첩장조차 자유롭게 만들 수 없던 시절, 우리는 불편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가족과 친지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

성대한 예식도 화려한 연회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담긴 마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시절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있었고, 공동체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결혼식은 그 본질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공공기관 결혼식장 이용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형식보다는 의미가 살아나며, 결혼이 개인의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결혼식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맞닿아 있다.

전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의 출발을 사회가 함께 축복한다"는 따뜻한 약속 말이다.

이제는 전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결혼식장을 선택하는 것이 부족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성숙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첫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결혼은 사치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공공기관 결혼식장 이용 문화의 활성화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사회에는 따뜻한 연대의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

젊은이들이 화려함보다 내실 있는 결혼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사설

금강산 관광 재개 희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올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한 뒤에 이 같은 희망사항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을 회상하며,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서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올해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한 민통선 앞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의 상점을 방문해 예로사항을 청취하며 "금강산 관광이 하루 빨리 재개되어 이곳에 다시 활기가 넘치고 사장님 장사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되었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 내부 구간에 대해 재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에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와 동해지구 군 운영단 현황을 점검하며 "통일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선민후관'의 원칙을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교육감 후보 표절 논란

기고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어느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본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지난 2021년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이 문제다. 10개 문단 중 6개 문단이 1년 전 다른 언론사에 실렸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왔다.

특히 기고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결론 부분까지 아이디어와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표절이 여러 언론사 칼럼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에, 그는 결국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왔습시다. 원저자, 관련 기관,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경쟁 후보들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표절 논란이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시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해당자는 겸직에는 응하겠다는 서도 시회 요구를 일축했고,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도 계속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의 거듭된 표절 논란이 전북 교육감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파행을 겪지 않음에 별써부터 우려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독자제언

며칠 전 파출소를 찾은 50대 후반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텔레그램 대화창에는 낯설지만 호감을 주는 여성의 사진과 다정한 안부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여성 소개 관계자를 사칭한 상대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라며 남성을 안심시켰고, 외로움 속에 하루를 보내던 그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일을 가족이 알게 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었다.

수백만 원을 송금한 뒤에도 금전 요구가 반복되자 그는 사기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파출소 문을 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중장년과

외로움을 파고든 미소, 로맨스 스캠의 덫

노년층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의 한 단면이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펼치자,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파출소에서 마주한 그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정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로맨스 스캠은 연인이나 지인을 가장해 감정적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다. 피해자가 스스로 상태를 믿고 돕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운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표적이 된다.

사기범들은 SNS와 메신저로 접근해 사진과 음성 메시지, 영상 통화까지 활용한다. 신뢰가 쌓이면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말로 가까워지자 사이트나 허위 코인 거래로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계약서, 조작된 수익 화면까지 제시되며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투자 사기로 이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로맨스 스캠 피해는 313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책과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은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고립과 급변한 디지털 환경이 맞물려 나타난 구조적 범죄다. 얼굴을 본 적 없는 관계에서 금전이나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 경찰에 즉시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주연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